

‘동백꽃...’ 변호사 홍자영 역

# 염혜란

‘살인의 추억’·‘도깨비’ 등 다수 출연

탄탄한 연기내공에 상승세 이어져



## “동갑친구 오정세와 부부역 편했죠”

시청률 20%를 넘기며 ‘대박’을 낸 KBS 2TV 수목극 ‘동백꽃 필 무렵’은 각각의 캐릭터가 생생하게 살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혼전문 변호사 홍자영은 특유의 걸크리시로 큰 사랑을 받았다.

홍자영 역으로 팬이 급증한 염혜란은 26일 강남구 압구정동 한 카페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극이 끝났다는 실감이 나지는 않는다”며 “이번주에 스페셜 방송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 실감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스페셜 방송에 관해선 “메이킹도 나가고, 그전에 방송 분량으로 인해 미처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도 같이 나간다”고 예고했다.

염혜란은 1999년 극단 연우무대에 입단한 뒤 2003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을 통해 스크린에도 진출했다.

계속해서 연기 내공을 키운 그는 2016년 노회경 작가의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에 출연해, 당시 나문희와 모녀지간 연기를 펼치며 호평을 받았다. 이후에도 ‘도깨비’, ‘슬기로운 감빵생활’, ‘라이프’, ‘라이프’, ‘무법 변호사’ 등 급작한 여러 작품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 ‘동백꽃 필 무렵’에서는 배우 오정세와 매력 철철 넘치는 부부 연기를 펼쳐 극의 감칠맛을 살렸다. 카리스마를 갖춘 당당한 여성이면서 조곤조곤 뛰어난 언변을 통해 상대방을 기세로 누르는 홍자영은 여성 팬들에게 대리만족도 안겼다.

염혜란은 “딱판으로 갈수록 물의 애정전선이 계속해서 전개되다보니깐 스스로도 보면서 행복했다”며 “중간에 ‘이혼’이란 변수가 있었지만, 결말이 좋아서 행복했다”고 했다. 그는 ““동백꽃 필 무렵’에서 호흡을 많이 맞춘 오정세 배우에게 고맙다”며 “평소에도 재밌는 동갑 친구라 편하게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염혜란은 극에서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애드리브를 자주 선보였는데, 정작 자신은 “대본이 디테일해서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다. 군더더기를 붙이는 게 미안하고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애드리브 허용된다는 장면에서만 했다”고 겸손함을 보였다.

염혜란은 이 드라마에서 명대사도 많이 만들었다. 마지막회에서 오정세를 상대로 한 “행간이 없다”라는 대사는 대사 중 “행간”이란 단어가 일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자리잡을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아끌어냈다.

그는 명장면을 뽑아달라는 질문에는 “구태를 구하기 위해 선보인 ‘드리프트’ 기술을 선보인 장면”이라고 답했다. “저도 그 장면을 연기하기 위해 대본을 받았을 때 너무 통쾌했다. 대본을 보면서 내내 ‘나도 이런 여성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인터뷰에서 염혜란은 ‘반전 매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실제로는 온전치 미숙하다고 밝힌 그는 “홍자영의 캐릭터를 무너트리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동안 다양한 캐릭터 연기를 선보인 그는 “연기해 보고 싶은 캐릭터”를 묻자 “안 해본 거는 다 해보고 싶다”고 힘주어 답했다.

“아직 다양한 캐릭터가 남아있잖아요. 좋은 작품이면 어떤 역할이든 하고 싶어요. 이전에는 로맨스극이나 멋있는 여성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동백꽃 필 무렵’에서 이를 충족했네요.”

염혜란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항상 연 말이면 쓸쓸하면서 춥다고 느꼈다. 그런데 올해는 크게 받은 사랑 덕분에 조금 덜 쓸쓸할 것 같다”고 인사했다. /연합뉴스

## ‘겨울왕국 2’ OST ‘인투 더 언노운’ 음원차트 10위권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OST(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도 국내 음원 사이트에서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지난 16일 발매된 ‘겨울왕국2’ OST 메인 타이틀곡이자 주인공 엘사의 주제가 ‘인투 더 언노운’(Into The Unknown)은 2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대부분의 음원 사이트 종합 차트 10위권을 기록 중이다.

멜론 차트에서 7위, 지니 5위, 플로 5위, 소리바다 5위, 올레뮤직 5위, 벅스 2위 등을 차지했다.

엘사의 또 다른 노래 ‘쇼 어웨이셀프’도 멜론 차트 17위, 지니 15위, 플로 13위 등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멜론 ‘팝 핫트랙’ 차트에서는 1~6위를

모두 ‘겨울왕국2’ OST가 채우기도 했다. 7위는 겨울왕국 1편 OST인 ‘렛 잇 고’(Let It Go)다.

태연이 노래한 ‘인투 더 언노운’의 ‘한국 어 버전’ 숨겨진 세상’도 발매 직후 멜론 종합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다.

‘겨울왕국2’ OST에는 ‘렛 잇 고’ 열풍을 만들어낸 전작의 프로듀싱 팀 크리스틴 앤더슨-로페즈와 로버트 로페즈 작곡가 부부, 크리스토프 벡 등이 참여했다. 주요 곡들엔 엘사와 안나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음악적으로 표현됐다.

유니버설뮤직은 “웅장하고 풍성한 사운드를 바탕으로 엘사와 안나의 고뇌와 깨달음을 가사로 풀어내 영화의 감동을 배가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냉장고를 부탁해’ 5년만에 마침표…257명 게스트 출연



극방(요리하는 방송)의 시초로 불린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가 5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2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방송한 ‘냉장고를 부탁해’ 마지막회 시청률은 1.941%(이하 비지상과 유료가구)를 기록했다.

최종회에서는 MC들과 셰프들이 냉장고를 열어 지난 5년간의 방송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스트로 이연복 셰프는 이문세, 셴김은 박정현, 김풍 작가는 이현이 등을 꼽았다. 또 JTBC 예능 최초로 1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한 빅뱅 지드래곤과 태양 편도 다시 한번 화제가 됐다.

‘베스트 냉장고’로는 요식업체 대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아내 소유진, 셴, 지드래곤의 냉장고를 꼽혔고 ‘워스트 냉장고’로는 상한 고기와 오래된 과일 등으로 채워졌던 인피니트 성규의 냉장고가 당첨됐다.

기억에 남는 역대 대결로는 고든 램지와

이연복의 15분 경쟁, MC 김성주와 안정환의 대결 등이 선택됐다.

이 밖에도 출연진은 서로 다양한 분야의 시상을 즐기며 5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김성주는 “아무도 우리 프로그램에 주목하지 않을 때 많은 사랑을 받아 여기까지 왔다”고 종영 소감을 밝혔고, 안정환은 “저희는 없어지지만 셰프들께서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유명 셰프들이 스타의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15분간 요리 대결을 펼친다는 콘셉트를 내세운 ‘냉장고를 부탁해’는 2014년 방송 후 5년간 257명의 스타 게스트가 다녀갔으며 1018개의 메뉴를 탄생시켰다.

한편, 다른 월화예능 중 SBS TV ‘동상 이몽2’는 6.6%~5.8%, MBC TV ‘마이리틀텔레비전V2’는 3.3%~3.1%, ‘언니네싸움’은 1.7%~1.7%, KBS 2TV ‘개는 훌륭하다’는 1.9%~2.4%의 시청률을 보였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특집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셀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어쩌다 발견한 하루(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특집 살맛 나는 오늘
[11]	10 아생여정(재) 40 KBS 뉴스특보 〈한·메콩 정상회의〉	00 동백꽃 필 무렵(재)	00 12 MBC 뉴스 20 두 번은 없다(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헬로카봇 유니버스
[12]	00 KBS 뉴스 12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미디어세상 시청자와 통하는 TV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고교생 50 KBS 재난방송센터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MBC스포츠포스트 2019 동북아 국제친선 탁구 교류전 〈남자 단체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30 벅스봇	00 2019 전국 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3]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라이프 오브 사만다(재)
[4]	00 시사간건	00 무한리필 셀러드(재)	00 뽀샤시 매카즈S 30 꾸러기 식사교실(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반지의 비밀일기 2 15 쏠! 내 친구는 빅파이브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5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새봄을 나빌레라 가야금 산조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쏘지락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하자있는 인간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00 동백꽃 필 무렵 스페셜	05 실화탐사대	00 시크릿 부티크
[10]	00 시사토론'10' 55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와 과제는?			
[11]	55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스탠드 업!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45 KBS 뉴스 55 인간극장 스페셜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식탁의 기사(재)	3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 EBS1

07:00 로보가 폴리 07:15 꼬마버스 타요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당동당 유치원 08:30 애코와 친구들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엄마 까투리 09:30 원더볼스 09:40 아기 동물 귀여워 10:00 지식의 기쁨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극한직업 13:00 EBS 다큐프라임 13:55 EBS 초대석 14:45 물랑 14:55 꼬마버스 타요(재) 15:10 로보가 폴리(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15:55 엄마 까투리(재)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25 페파 피그(재) 16:40 당동당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17:00 EBS 뉴스 17:20 그림을 그려요 17:30 애코와 친구들(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19:00 스파이더맨 19:30 생방송 판다다 20:00 머털도사 20:30 아기 동물 귀여워(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미지의 섬, 슬로몬제도 -해피 아일랜드〉 21:30 한국기행 〈김치 대첩 3부 덩부령, 김장 그름이야〉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극한직업 23:35 EBS 초대석 24:25 지식의 기쁨(재)
--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7일(음 11월 1일 戊辰) ☎010-9790-8237

 子	36년생 번거롭더라도 직접 상면해야 시원하게 해결 된다. 48년생 현재에 국한 시키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시각을 갖자. 60년생 초심을 회복한다면 반드시 기회가 보일 것이다. 72년생 말만으로는 아니 되니 과감하게 실행함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84년생 부담이 경감 되겠다. 96년생 비교 되면서 진가가 드러나리라. 행운의 숫자 : 90, 43	 午	30년생 함께할 자리에 빠지는는 아니 되겠다. 42년생 불가피한 상황이니 감내해야만 하느니라. 54년생 하루가 다르게 변하리라. 66년생 눈앞의 이익 때문에 숨겨진 화를 간과할 수도 있으니 참으로 조심해야겠다. 78년생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 되어 주리라. 90년생 폭이 넓어지고 정도가 깊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86, 64
 丑	37년생 분명하다면 확실히 믿어 붙여야 한다. 49년생 희망의 해가 떠오르고 있다. 61년생 자신이 쏟아 부은 노력과 반비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73년생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행하다보면 실수를 이기는 밑거름이 된다. 85년생 안도하기에는 이르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97년생 다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09, 58	 未	31년생 의심스럽다면 차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43년생 소신에 있어야 제대로 능력을 발휘 하느니라. 55년생 사소함에서 비롯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67년생 뒤쫓아 이면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 하겠다. 79년생 현재의 국면이 매우 중요하니 어느것하나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 91년생 확실한 어필이 필요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81, 53
 寅	38년생 모순점이 보인다. 50년생 체제와 질서에 따라야 만이 순조로움을 부르리라. 62년생 일이 다 벌어진 후에 손을 쓰면 소용이 없다. 74년생 실력부터 키우고 볼 일이다. 86년생 생계속될 것이다. 98년생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것에 신경을 써야겠다. 행운의 숫자 : 51, 07	 申	32년생 무의식중에 넘어지거나 밟힐 수도 있느니라. 44년생 복잡다단한 국량이니 부지런히 행거야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56년생 참으로 절기면서서도 미묘한 인연 앞에서 당황 하리라. 68년생 난관은 자기 성찰을 하게 하는 기회를 준다. 80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산적이다. 92년생 힘든 만큼 수확의 결실도 알차겠다. 행운의 숫자 : 63, 79
 卯	39년생 아차하면 후회할 것이니 시간 할애를 잘 해야 한다. 51년생 차근차근 해나가자. 63년생 명분과 이해득실 앞에서 상당히 고민할 수다. 75년생 빠짐없이 자제히 살펴 볼 일이다. 87년생 다양한 방법의 개발은 생산성을 높인다. 99년생 부진함을 만회할 수 있는 상상의 운세가 다가오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7, 23	 酉	33년생 시기가 아니라 완성도의 문제가 될 것이다. 45년생 삶에 있어서 큰 획을 긋듯 분수령이 되는 날이다. 57년생 전후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9년생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잘 활용하자. 81년생 주르 갔다가 오히려 반고 오는 양태이다. 93년생 가까운 이와의 인연이 길사로 연결되겠다. 행운의 숫자 : 19, 94
 辰	40년생 아는 길도 물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52년생 현재의 판세에 있어서 굳이 여유분을 둘 필요까지는 없겠다. 64년생 주의한다면 외위의 손실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76년생 낱알이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88년생 소상하게 알기 전까지는 속단을 내리지 말아야한다. 00년생 실효적 관점에서 기준 삼아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5, 96	 戌	34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46년생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맞다. 58년생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진을 정비할 때다. 70년생 의도대로 행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니 기탄없이 처리하고 불일이다. 82년생 살펴 볼일이다. 94년생 불변함이 겹치는 이중고의 상태이다. 행운의 숫자 : 24, 13
 巳	41년생 비웠을 때 비로소 채울 수 있는 법이다. 53년생 전폭적인 성원이 발전의 촉매제가 된다. 65년생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하는 의문점이 남는다. 77년생 상당한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다. 89년생 표면은 볼 품 없으나 상당히 실속이 있을 것이다. 01년생 유명무실한 것부터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행운의 숫자 : 83, 82	 亥	35년생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47년생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 59년생 역풍이지만 곧 순풍으로 바뀌리라. 71년생 거의 비슷한 정황이 단순 반복 되면서 지루 하리라. 83년생 진보하지 않는다면 때밀러날 것임에 틀림없다. 95년생 속단은 금물이니 차분하게 생각 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92, 56